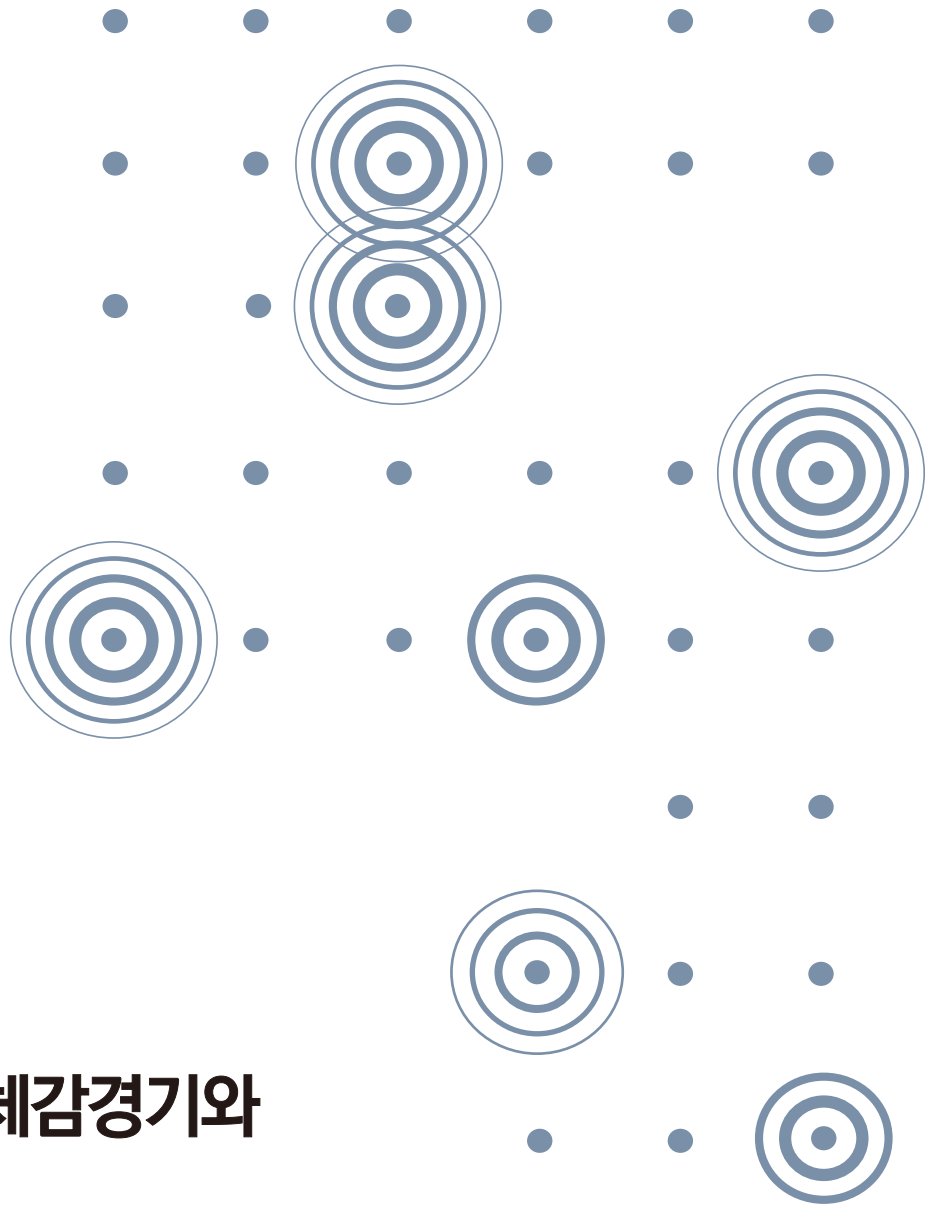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31호 2021. 9. 20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추석 경기 진단

오은주
연구위원

유인혜
연구원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331호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추석 경기 진단

발행인 유기영
편집인 양재섭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1년 9월 20일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추석 경기 진단

오은주 연구위원
02-2149-1037
ejoh@si.re.kr

유인혜 연구원
02-2149-1073
inhye215@si.re.kr

요약	3
Ⅰ.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Ⅱ.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추석 경기 진단	18
부록: 2021년 3/4분기 주요 조사결과	26

요약

서울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생산지수 모두 상승세 유지

2021년 2/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8.8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해 전 분기 증감률인 6.0%의 기록을 넘어섰다.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0% 상승한 81.5로 나타나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 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9.9로 기준치(100) 아래로 떨어졌지만, 3월(36.8%) 이후 상승 폭이 둔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8.9% 상승하며 6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 「백화점 판매액지수」와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5%, 6.1% 증가했다. 2021년 7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508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2% 증가했고,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9.7% 증가한 93만 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속 소폭 상승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1년 3/4분기 93.2로 전 분기 대비 0.3p 소폭 상승하면서 2분기 연속 90선을 유지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 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79.2로 전 분기 대비 2.6p 상승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 대비 2.0p 상승한 97.1로 나타났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1.7p 내린 55.0이었고, 「미래경기판단지수」도 4.9p 하락해 81.6을 나타냈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2.6으로 전 분기 대비 2.4p 상승했고,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0.5p 올라 87.8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0.3p 하락한 81.6으로 주춤했지만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1.5p 상승했다. 「순자산지수」와 「물가예상지수」는 전 분기보다 각각 0.4p, 1.9p 소폭 상승했고,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 분기보다 2.5p 내려 4분기 연속 상승세가 하락으로 전환하였다.

코로나19 추석 2년째, 올 추석 경기 작년보다 안 좋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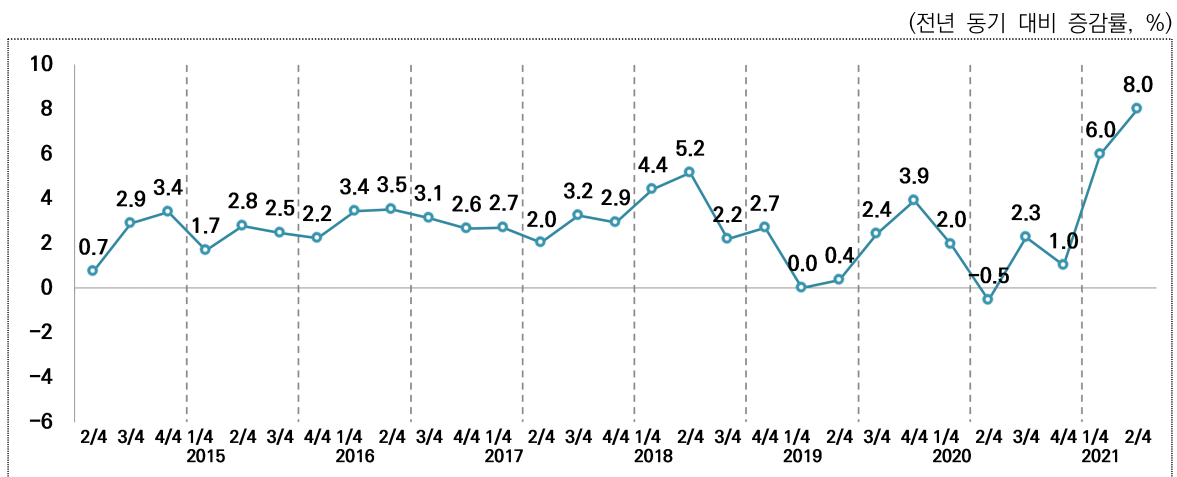
서울시민들이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바라는 과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 54.3%로 가장 많았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서울시민의 65.1%는 올 추석에 이동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서울시민의 64.4%는 올해 추석 경기가 작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고, 지출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줄어든 것으로 전망했다. 추석 예상 지출액은 ‘20만~50만 원 미만’이 36.8%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민의 절반 정도는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 장소로 대형마트를 선호했지만, 2017년 1.9%에 불과했던 온라인 쇼핑몰은 코로나19 2년째인 2021년에 14.0%로 증가해 5년 만에 7.4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I 서울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생산지수 모두 상승세 유지

2021년 2/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생산지수 전년 대비 크게 상승

- 2021년 2/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8.8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
 - 2/4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해 전 분기 증감률인 6.0%의 기록을 경신
 - 전 업종에 걸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4.1%)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그다음은 ‘운수 및 창고업’(25.1%), ‘부동산업’(12.8%) 등의 순으로 상승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1.3%를 기록해 상승 폭이 가장 작았고, ‘정보통신업’(1.6%), ‘숙박 및 음식점업’(2.6%) 등의 순으로 조사
- 2021년 7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81.5로 전년 동월 대비 9.0% 상승
 - 2021년 7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9.0% 상승한 81.5를 기록하면서 2021년 2월부터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
 - 「제조업생산지수」의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11.7%로 나타나 2021년 4월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는 추세
 -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2021년 4월 1.3% → 5월 4.8% → 6월 10.0% → 7월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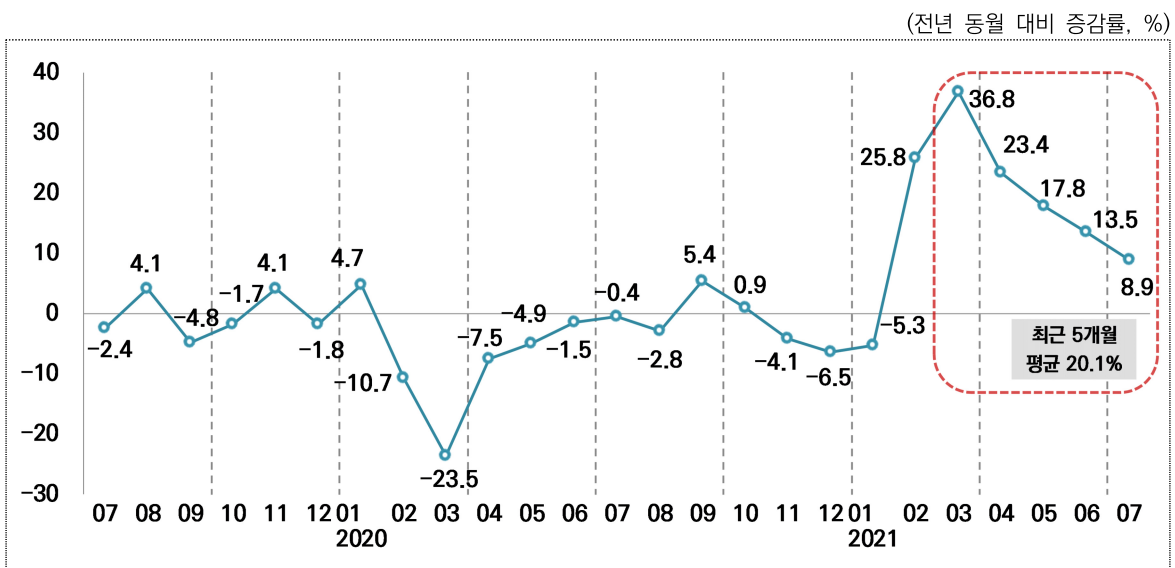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¹⁾

1) 2019년 1월 공표 시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른 최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계절조정 작업으로 2000년 이후 시계열이 변경되었음.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로 상승세 지속되지만 증가 폭은 둔화

- 2021년 7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²⁾는 증가 폭 둔화 속에 상승세는 지속
 -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9.9로 기준치(100) 아래로 떨어졌고, 3월(36.8%) 이후 상승 폭이 둔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8.9% 상승하며 6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는 양상
 -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20.1%를 기록
- 부문별로 보면, 2021년 7월 중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5% 증가,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도 6.1% 증가하여 3개 지수 모두 상승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02.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5% 상승했으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30.6%로 판매액지수 중 가장 높은 수준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95.7로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했으며, 최근 5개월간 평균 증감률은 2.4% 수준
 - 「백화점 판매액지수」만이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지수는 3개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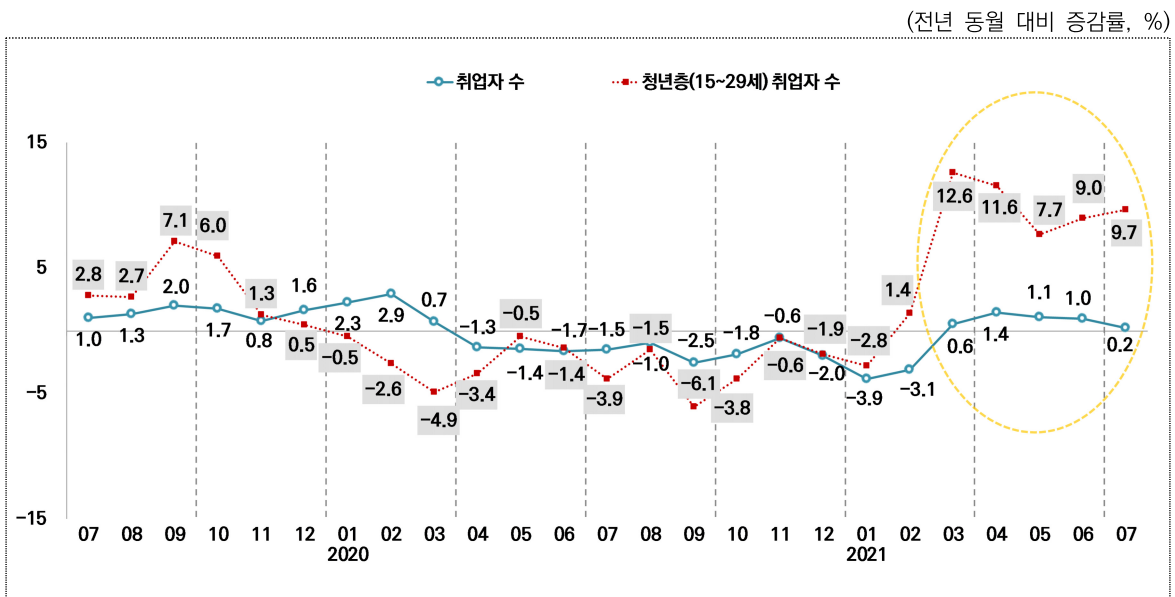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모두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웃렛 등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웃렛이 제외되었음

전년 동월 대비 전체 취업자 증감률 주춤, 청년층 취업자는 증가

- 2021년 7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³⁾는 508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507만 6천 명)보다 0.2% 증가
 -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본 전체 「취업자 수」는 0.2% 소폭 증가했으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0.9% 수준
- 2021년 7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4만 8천 명)보다 9.7% 증가한 93.0만 명
 - 「청년층 취업자 수」는 최근 5개월 연속 90만 명 이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9.7% 상승하여 6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10.1% 수준
- 전월 대비 2021년 7월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증가
 - 2021년 7월 전체 「취업자 수」는 508만 7천 명으로 전월 509만 8천 명보다 1만 1천 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월(92만 5천 명)보다 5천 명 증가한 93만 명으로 조사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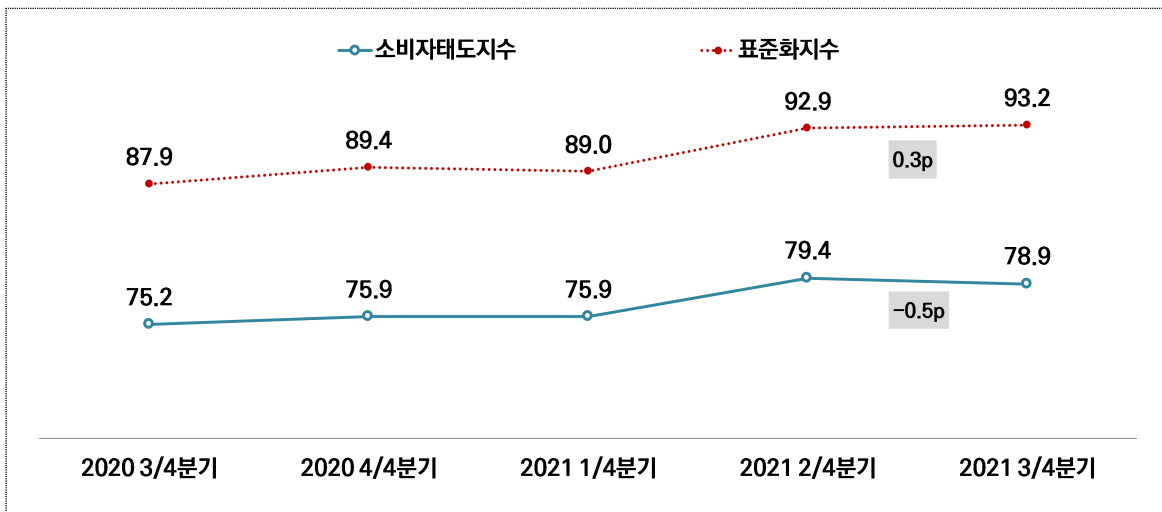
3) 고용통계는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II.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I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속 소폭 상승

3/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90선 회복 후 쉬어가는 흐름

- 2021년 3/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⁴⁾ 기준 93.2로 90선 연속 유지
 - 「소비자태도지수」의 표준화지수는 93.2로 전 분기 대비 0.3p 소폭 상승하였고, 2분기 연속 90선 유지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가 1.5p 올라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상승했고,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는 3.3 내려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60대 가구가 1.2p 상승했고, 나머지 연령대는 소폭 하락한 가운데 40대가 1.7p로 가장 크게 감소
- 서울시민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외 불안 요소로 불확실성 증가
 - 최근 「소비자태도지수」는 고용지표 개선과 함께 완만하게 회복세를 유지
 - 그러나 3/4분기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및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물가 상승, 가계빚 증가, 원·달러 강세,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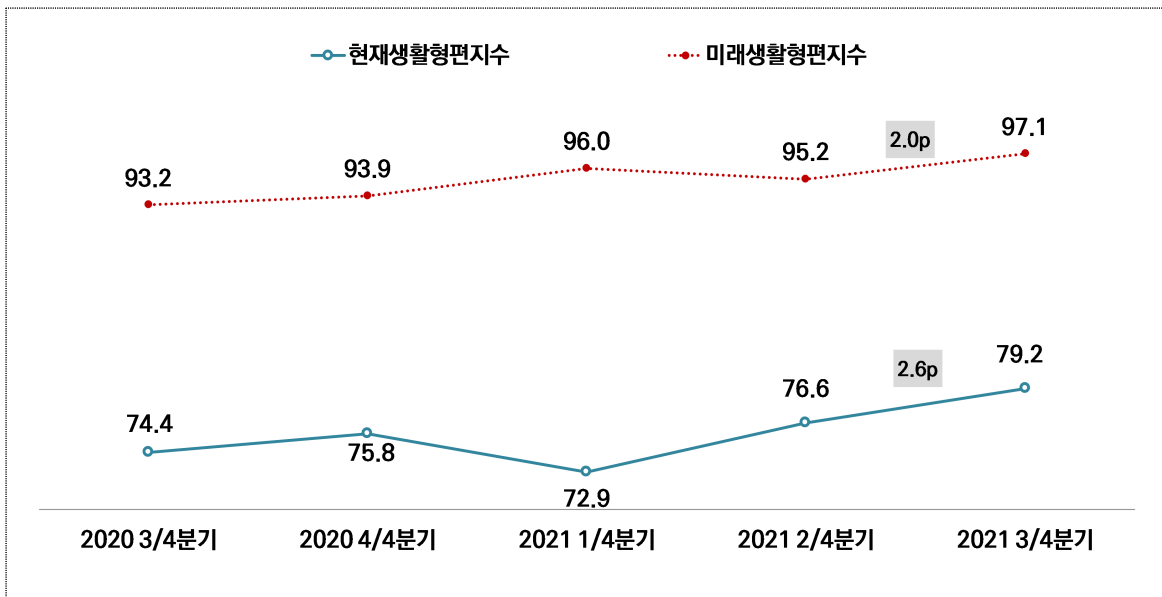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4)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임. 연도별로 조사되는 시계열의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함

현재생활형편지수·미래생활형편지수 모두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

- 2021년 3/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연속 상승,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상승 전환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2.6p 오른 79.2로 나타나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 분기에 하락한 「미래생활형편지수」도 2.0p 올라 97.1을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모든 소득계층과 연령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득계층별로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의 상승 폭이 3.9p로 가장 컸고, 연령별로는 60대가 7.1p 올라 가장 크게 상승
 - 「미래생활형편지수」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연 가구소득 7,2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4.4p 오르면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연령별로는 50대가 4.3p 올라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1년 후 가구 생활 형편이 호전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는 ‘가계소득 증가’와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⁵⁾
 - 1년 후 가구 생활 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가계소득 증가’가 44.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22.4%), ‘막연한 기대감’(9.1%), ‘지출비용 감소 예정’(8.0%) 등의 순으로 응답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소득 증가’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가계소득 증가’가 절반(50.5%)을 차지
 - 연령별로도 ‘가계소득 증가’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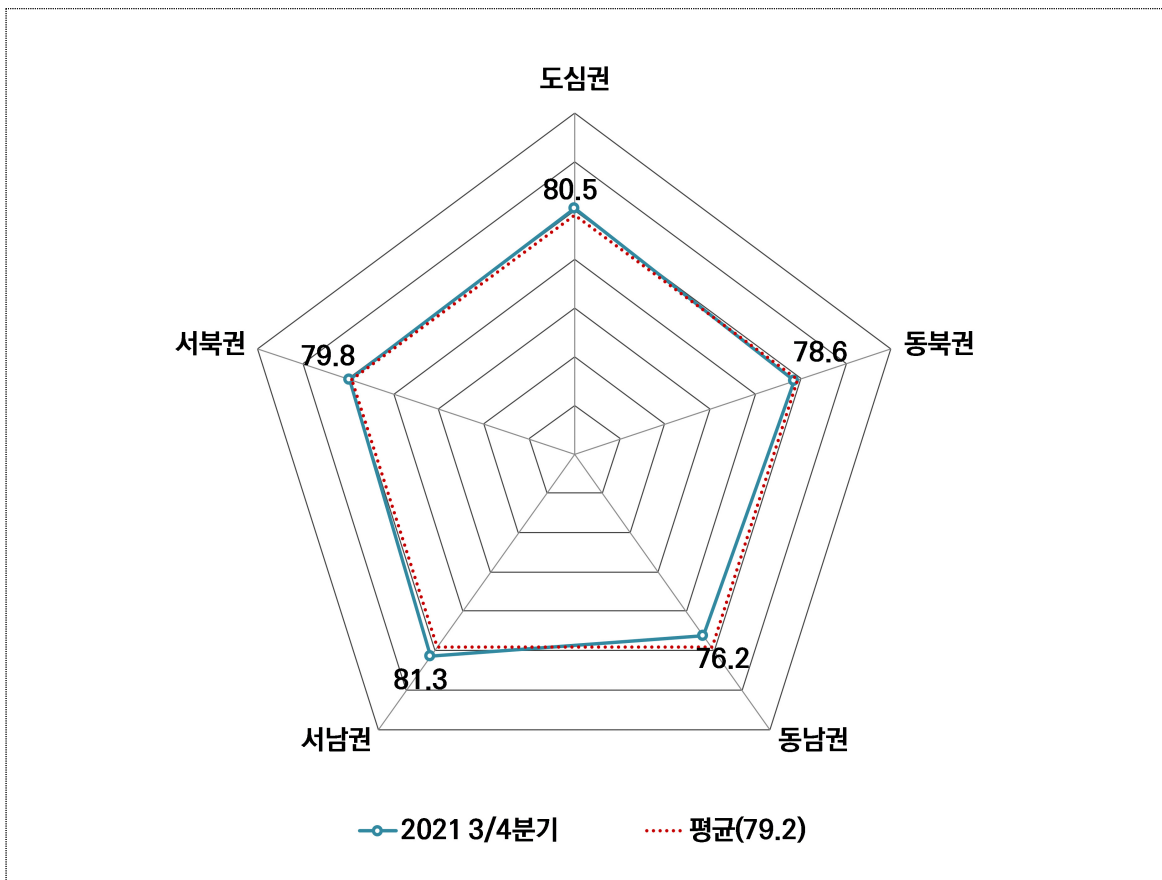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5) 서울시민의 23.8%(286명)는 1년 후 '미래생활형편 호전'을 전망했고 25.6%(307명)는 '미래생활형편 악화'를 전망했는데 미래생활 형편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서남권이 제일 높고, 서북권은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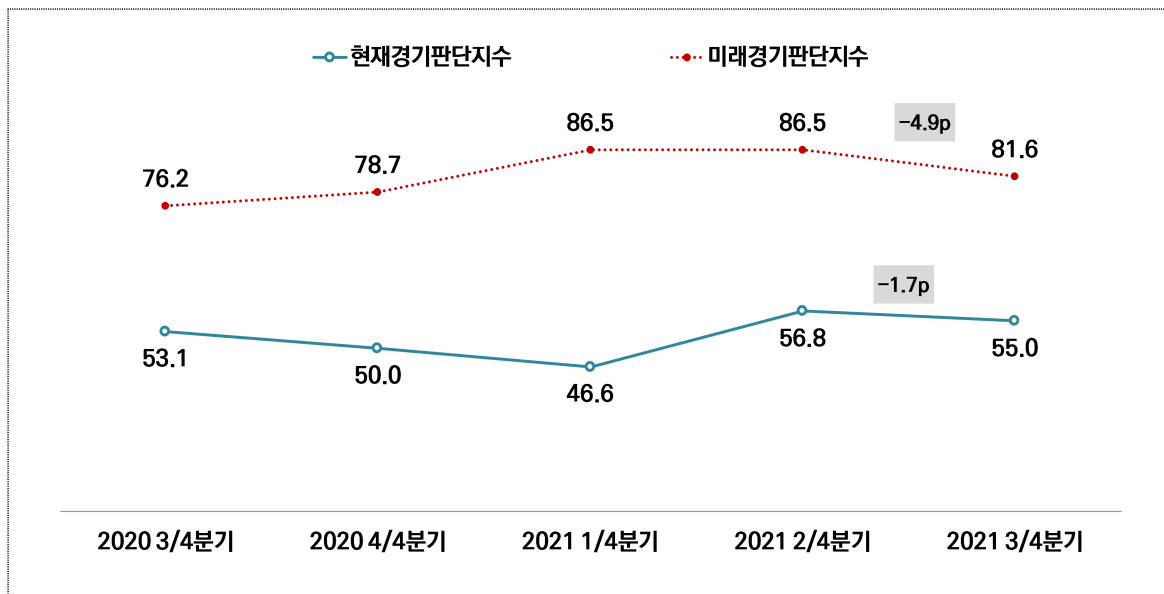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서남권이 가장 높고, 동남권이 가장 낮게 조사
 - 서남권(81.3), 도심권(80.5), 서북권(79.8) 권역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남권(76.2), 동북권(78.6)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 2021년 3/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에서 전 분기 대비 서북권은 8.8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고, 동남권은 4.5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 서북권이 8.8p 상승한 가운데 동북권과 서남권도 각각 6.9p, 2.7p 상승
 - 반면, 동남권(-4.5p)과 도심권(-3.2p)은 전 분기 대비 하락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미래경기판단지수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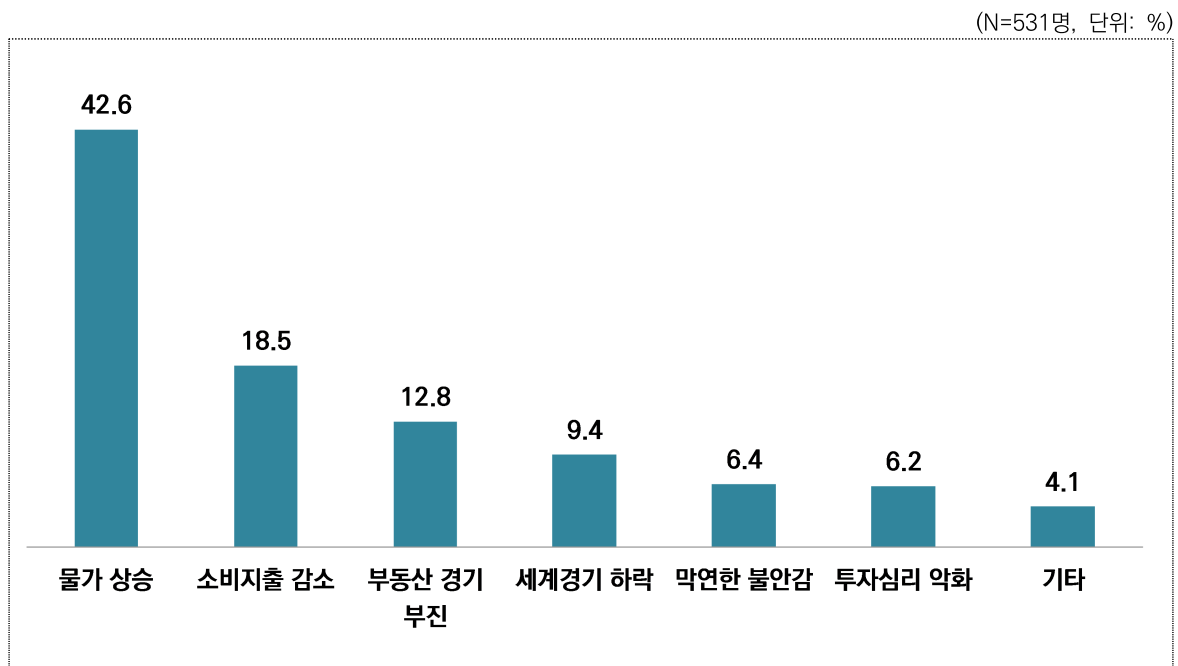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55.0으로 전 분기(56.8) 대비 1.7p 하락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단기상승 후 1.7p 소폭 하락
 - 2021년 3/4분기에 들어서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4차 대유행의 영향이 있었지만 학습 효과,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하락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연 가구소득별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6.1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 가구주 연령별 「현재경기판단지수」는 30대와 40대가 하락한 가운데, 40대에서 전 분기 대비 6.7p 내려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2021년 3/4분기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81.6으로 전 분기 대비 4.9p 하락
 - 2021년 3/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81.6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80선 수준을 유지
 - 연 가구소득별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400~3,600만 원 미만(1.1p)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가 11.4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
 - 연령별 「미래경기판단지수」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으며, 50대가 6.5p 내려 가장 큰 폭으로 하락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로 ‘물가 상승’이 높은 비중⁶⁾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로 ‘물가 상승’ 지목
 - ‘물가 상승’이 4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소비지출 감소’(18.5%), ‘부동산 경기 부진’(12.8%) 순으로 조사
 -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서 ‘소비지출 감소’와 ‘부동산 경기 부진’은 전 분기 대비 각각 4.9%p, 2.9%p 감소한 반면 ‘물가 상승’은 7.5%p 올라 비중이 증가
- 모든 소득수준과 연령대에서 ‘물가 상승’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1순위
 - 연 가구소득별로는 전 소득계층에서 ‘물가 상승’이 35%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면서 향후 경기 악화의 주된 이유로 지목된 가운데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48.8%를 기록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가 ‘물가 상승’을 향후 경기 악화의 첫 번째 이유로 지목하였으며, 60대에서는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
- 2021년 8월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월(1.9%)과 동일하지만 전년 동월(0.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
 -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1년 4월 1.7% → 5월 1.9% → 6월 1.6% → 7월 1.9% → 8월 1.9%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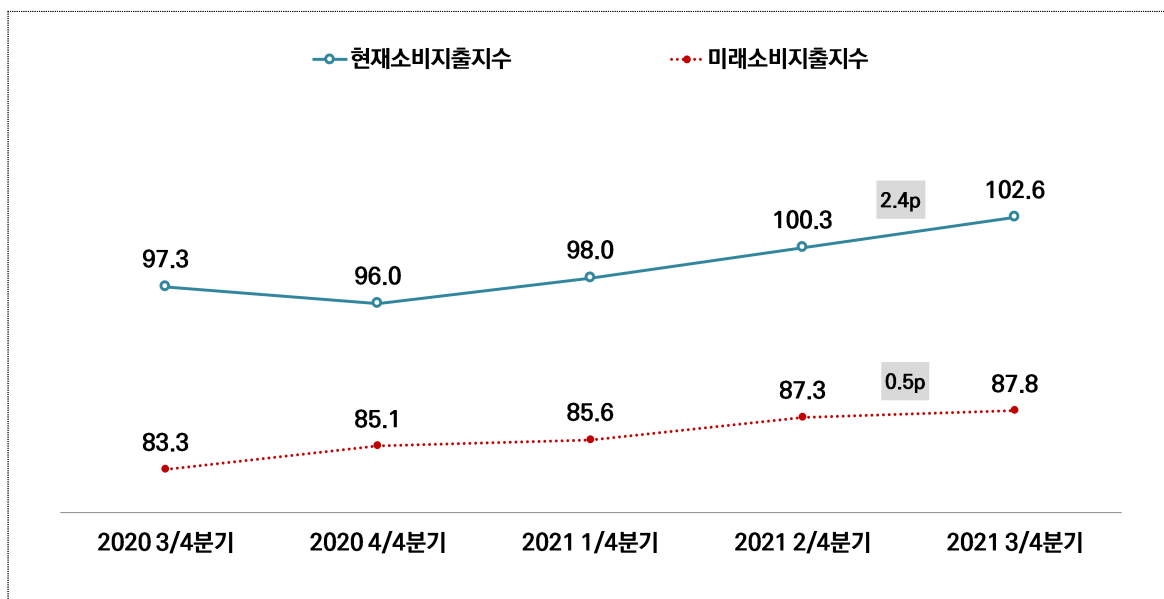
[그림 8]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

6) 서울시민의 18.7%(224명)는 1년 후 '경기 호전'을 전망했고, 44.3%(531명)는 '경기 악화'를 전망했는데,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

7)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등록률(KOSIS 재인용)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모두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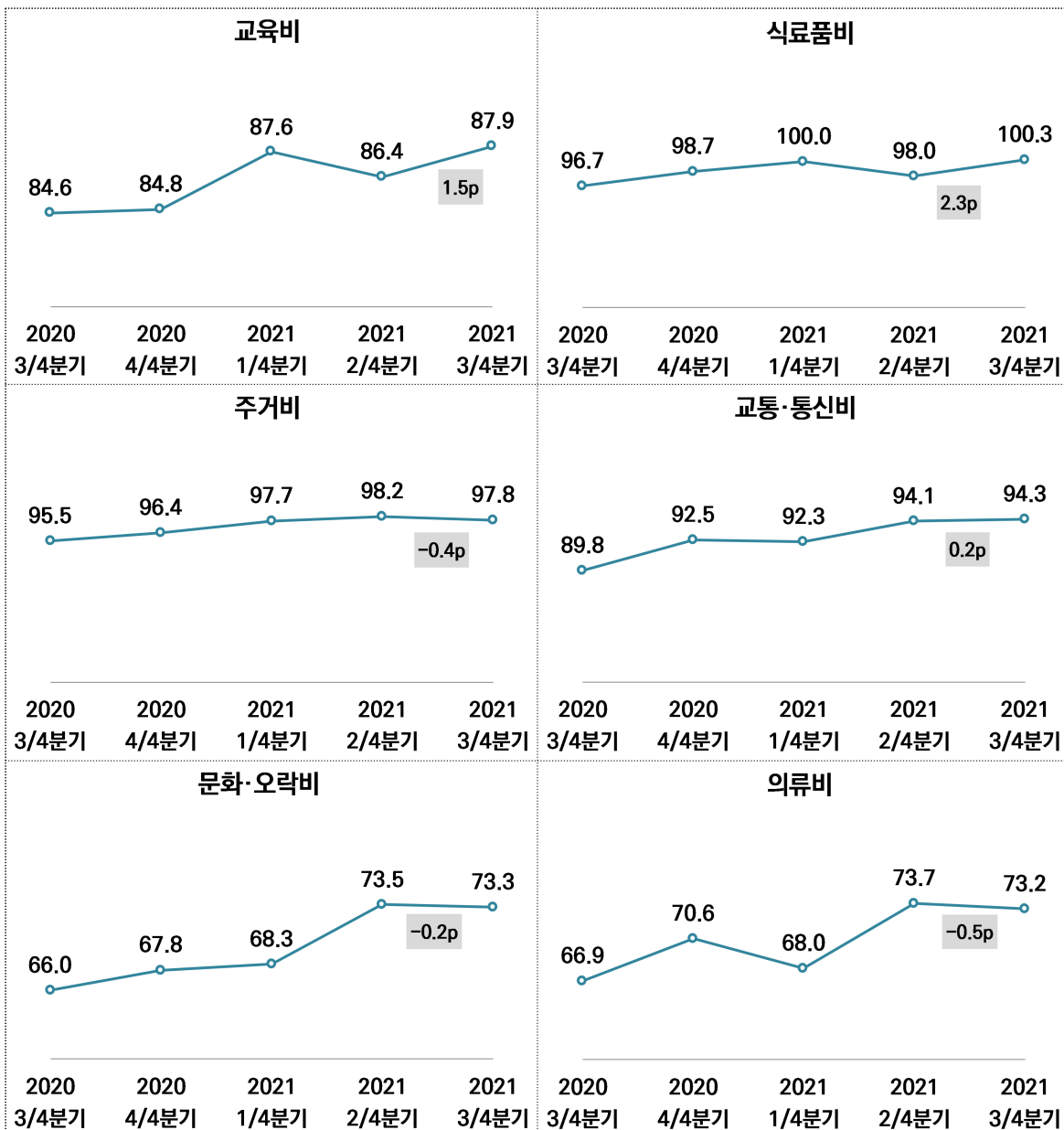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2.6으로 전 분기 대비 2.4p 상승
 - 2021년 3/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2.4p 올라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최근 3분기 연속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전 소득계층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3,600~4,800만 원 미만과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가 각각 4.9p 올라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별 「현재소비지출지수」는 40대(-1.8p)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모두 소폭 상승했으며, 특히 50대가 5.5p 올라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2021년 3/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7.8로 전 분기보다 0.5p 상승
 - 2021년 3/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며 87.8을 기록
 - 연 가구소득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7,200만 원 이상 가구가 3.9p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고,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는 3.9p 내리면서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50대가 1.5p 오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60대는 2.9p 내려 가장 많이 감소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식료품비와 교육비가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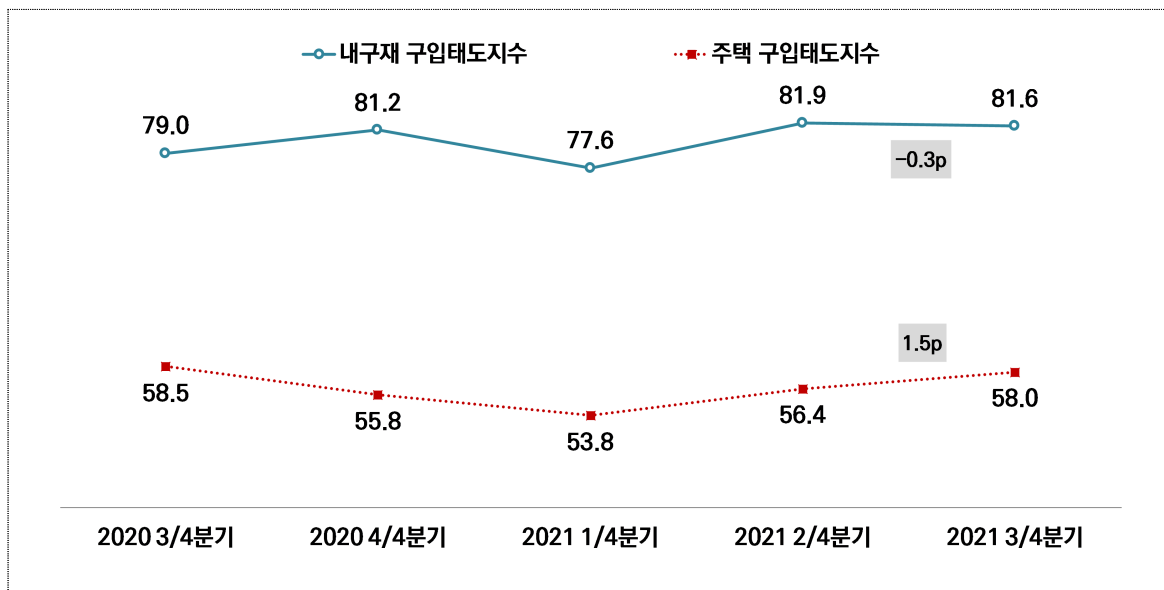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식료품비’가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식료품비’ 지수가 전 분기 대비 2.3p 올라 전 품목 중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교육비’(1.5p), ‘교통·통신비’(0.2p) 순
 - ‘의류비’(-0.5p) 외 ‘주거비’(-0.4p), ‘문화·오락비’(-0.2p) 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
- ‘식료품비’ 지수가 가장 높고, ‘의류비’ 지수가 가장 저조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식료품비’가 100.3으로 가장 높은 반면, ‘의류비’가 73.2로 가장 낮게 조사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의사 주춤, 주택 구입의사 상승세 유지

- 2021년 3/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0.3p 하락하면서 81.6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3,600만 원 미만(2.4p)과 3,600~4,800만 원 미만(1.0p)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4.3p 내리면서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50대와 30대 이하에서 「내구재 구입태도지수」가 전 분기 대비 각각 3.5p, 0.9p 감소했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상승
- 2021년 3/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58.0으로 2분기 연속 상승
 - 2021년 3/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58.0으로 전 분기 대비 1.5p 상승
 - 연 가구소득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2,400만 원 이하 가구의 상승 폭이 14.4p로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7,200만 원 이상 가구는 4.5p 감소한 것으로 조사
 - 연령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30대 이하 연령대가 유일하게 7.1p 상승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는 하락
 - 2021년 7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100.6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 2021년 3월 98.5 → 4월 98.9 → 5월 99.3 → 6월 100.0 → 7월 100.6⁸⁾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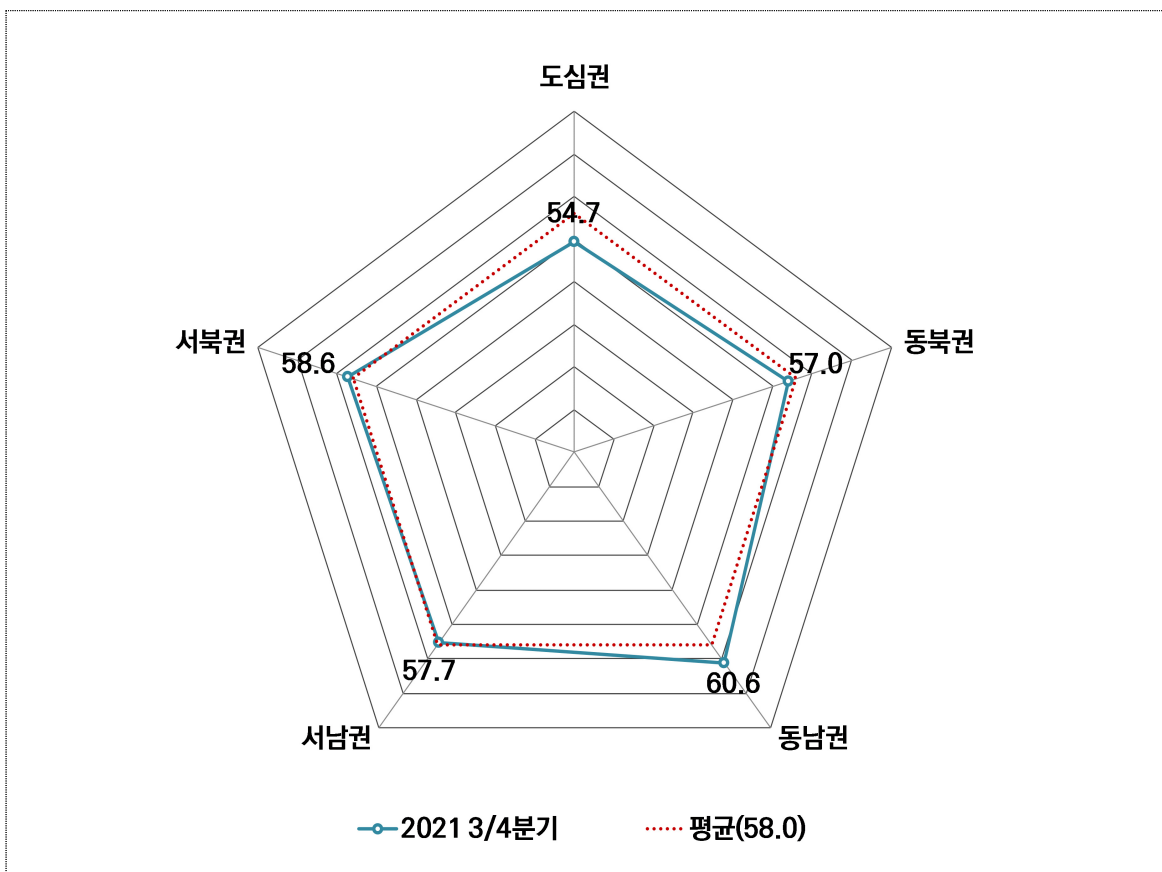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8) 2021년 9월 기준, 주택유형별 매매가격지수의 기준시점(단위)이 기존 '2017.11=100'에서 '2021.06=100'으로 변경되었으나 지수의 흐름과 변동률은 동일함

9)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KOSIS,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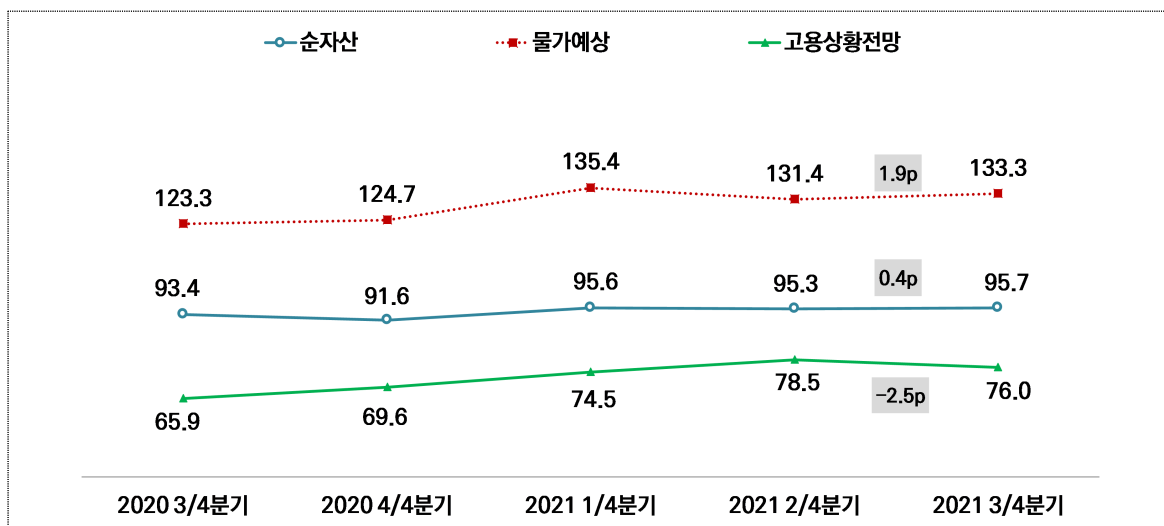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도심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소폭 상승
 -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가장 높은 권역은 동남권(60.6)이며, 가장 낮은 권역은 도심권(54.7)으로 조사
 - 전 분기 대비 0.9p 하락한 도심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역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소폭 상승했으며, 그 중 동북권(57.0)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전 분기 대비 4.4p 올라 전 권역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순자산지수와 물가예상지수는 소폭 상승, 고용상황전망지수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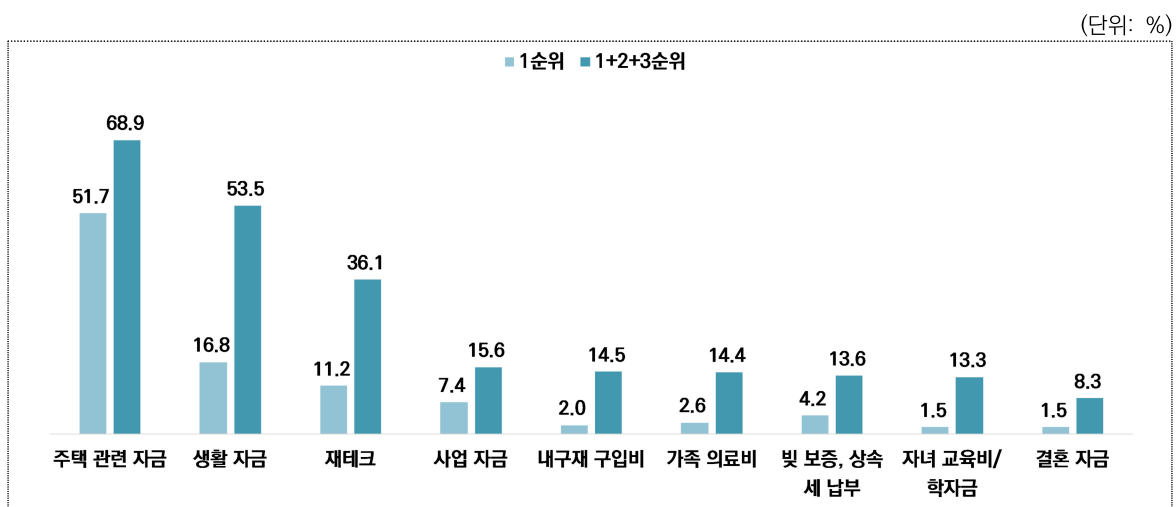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순자산지수」는 95.7로 전 분기보다 0.4p 상승
 - 가계의 순자산이 상승한 이유로 ‘금융자산이 늘었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동산이 늘었다’(27.5%), ‘부채가 줄었다’(22.0%) 순
 - 연 가구소득별로 순자산 상승의 주된 이유가 다양한 가운데 소득이 낮은 그룹인 2,400만 원 미만과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는 ‘금융자산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3,600~6,000만 원 미만 가구는 ‘부채가 줄었다’가, 6,000~7,200만 원 이상은 ‘부동산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와 50대 연령대는 ‘금융자산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40대와 60대는 ‘부동산이 늘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
- 2021년 3/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133.3으로 전 분기보다 1.9p 상승
 - 「물가예상지수」는 133.3으로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7.2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고,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전 분기 대비 3.8p 오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2021년 3/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6.0으로 전 분기 대비 2.5p 하락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4분기 연속 상승을 이어갔으나, 2021년 3/4분기에 하락세로 전환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2.4p)과 2,400~3,600만 원 미만(1.9p)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에서 「고용상황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가 6.6p 내려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고용상황전망지수」가 0.7p 상승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50대의 하락 폭이 6.7p로 가장 크게 조사



[그림 13]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전 분기와 비슷한 55% 수준

- 2021년 3/4분기에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 대상 가구의 55.0%로 전 분기 대비 0.4%p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계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특히,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는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
 - 연령별로는 60대에서 ‘가계부채가 없다’는 응답이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보다 높았을 뿐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40대가 5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가계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은 19.4%로 전 분기 (19.5%) 대비 0.1%p 감소¹⁰⁾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는 ‘원리금 상환’이 63.6%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이자만 상환’ (31.8%), ‘상환 안 함’ (4.5%)의 순으로 나타나 전 분기 대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
- 가계부채 주 사용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이지만 2,400만 원 미만 가구는 ‘생활 자금’ 비중 더 높게 조사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1순위 기준으로 ‘주택 관련 자금’ (51.7%)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생활 자금’ (16.8%), ‘재테크’ (11.2%), ‘사업 자금’ (7.4%), ‘빚 보증, 상속세 납부’ (4.2%) 순
 - 연 가구소득별로는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400만 원 미만 가구는 ‘생활 자금’ (39.1%)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40대는 63.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1~3순위 기준 역시 ‘주택 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각각 68.9%, 53.5%로 가장 높았으며, ‘재테크’ (36.1%)도 높은 수준



[그림 14]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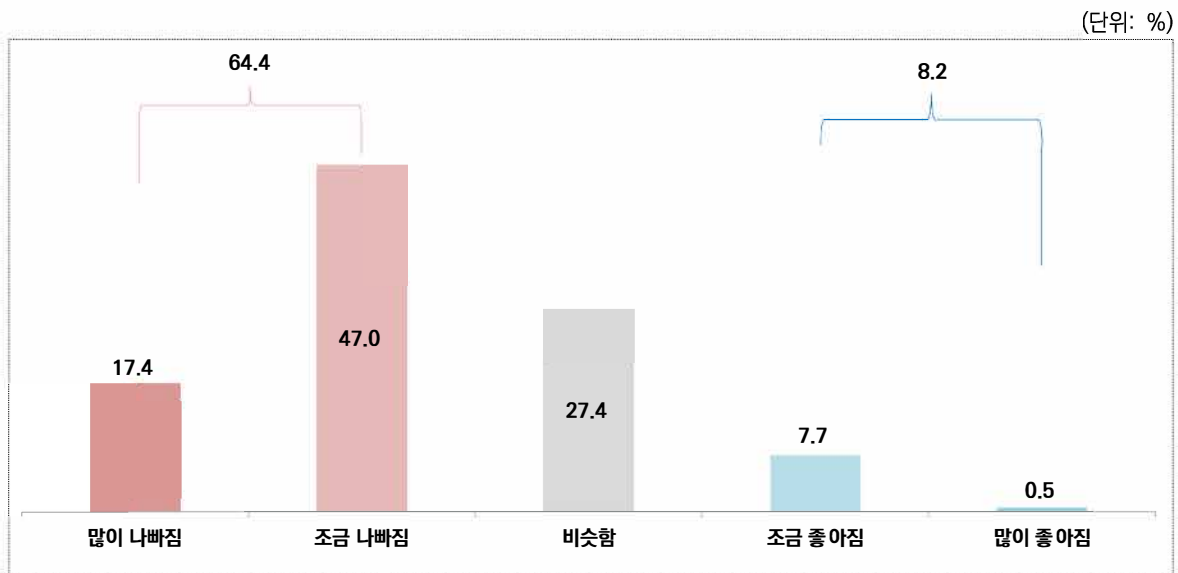
10) 2019년 4/4분기까지는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하였으며, 2020년 1/4분기부터는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함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추석 경기 진단

Ⅰ 코로나19 추석 2년째, 올 추석 경기 작년보다 안 좋을 것으로 전망

올해 추석 경기는 작년보다 좋지 않고, 지출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줄어든 것으로 전망

- 서울시민의 64.4%는 올해 추석 경기가 작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올해 추석 경기는 ‘작년 추석보다 조금 나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작년 추석보다 많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도 17.4%로 조사
 - 올해 추석 경기가 ‘작년 추석보다 좋아질 것’(조금 좋아짐 7.7% + 많이 좋아짐 0.5%)이라는 응답은 8.2%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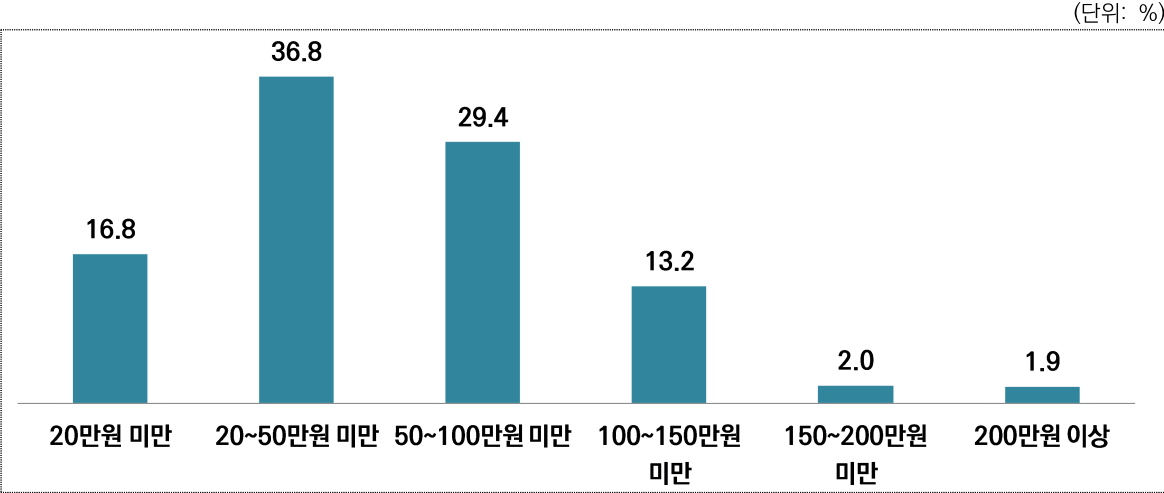
[그림 15] 작년 대비 올해 추석 경기 전망

자료: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 대상 설문조사 중 1,200명 응답

- 조사 대상 가구의 절반은 올해 추석 지출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줄어든 것이라는 응답도 상당수
 - 올해 추석 지출이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는 응답 비중이 55.8%로 절반 이상을 차지
 - 다만, 올해 추석 지출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다’는 응답은 12.4%였으며,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나 ‘줄어든 것이다’는 응답이 ‘늘어날 것이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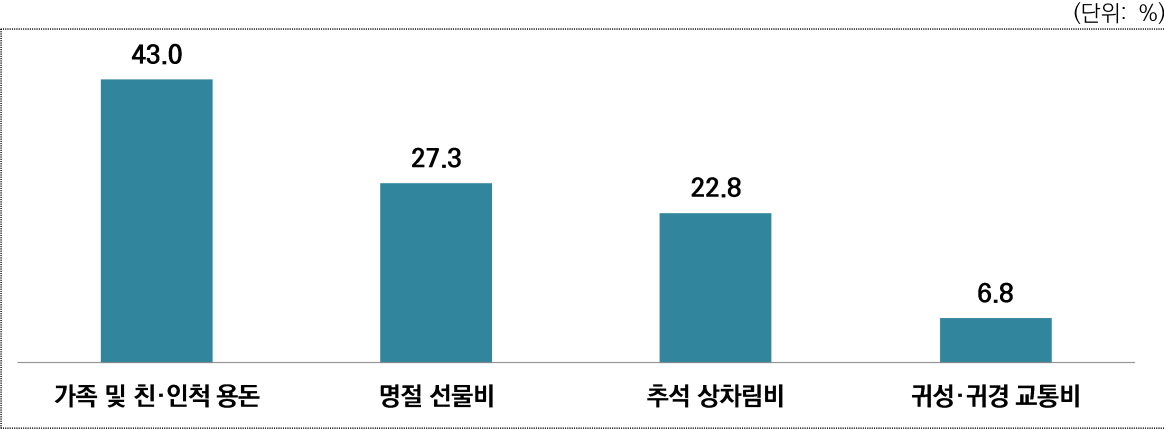
올 추석 예상 지출 비용 ‘20만~50만 원 미만’, 부담되는 비용은 ‘가족 및 친인척 용돈’

- 올해 추석의 예상 지출액¹¹⁾은 ‘20만~50만 원 미만’이 3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그다음은 ‘50만~100만 원 미만’(29.4%), ‘20만 원 미만’(16.8%) 등의 순
 - 연 가구소득별로는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올 추석 예상 지출 비용으로 ‘20만~50만 원 미만’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20만 원 미만’이 43.2%로, 7,200만 원 이상 가구는 ‘50만~100만 원 미만’이 3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20만~50만 원 미만’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그림 16] 올해 추석 예상 지출 총액

- 추석 준비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은 ‘가족 및 친·인척 용돈’이 43.0%로 1위
 - 그다음은 ‘명절 선물비’(27.3%)와 ‘추석 상차림비’(22.8%) 순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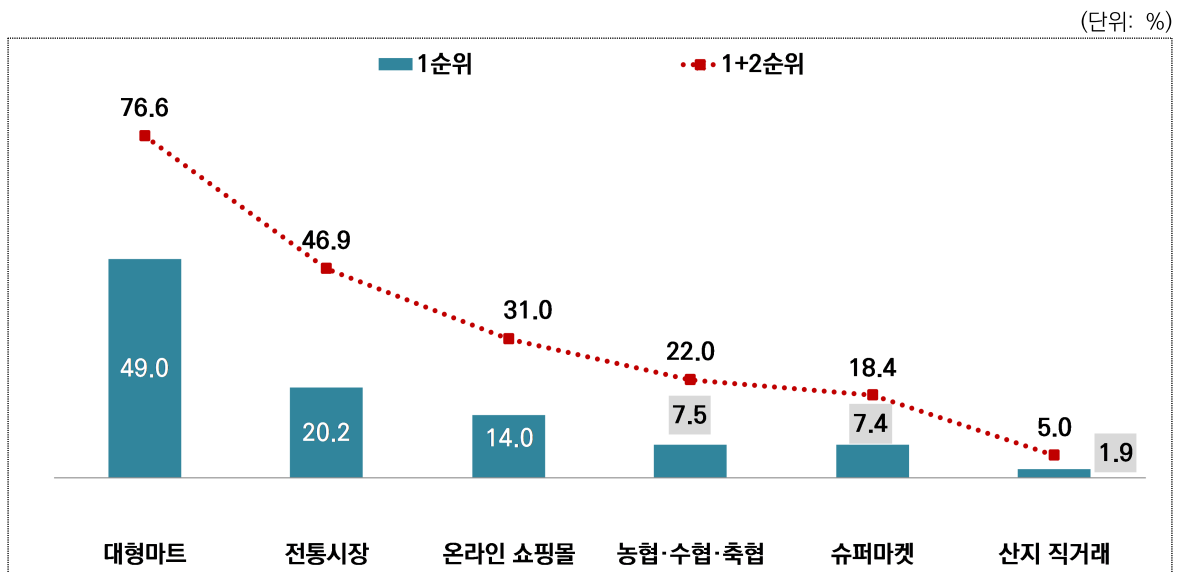


[그림 17] 추석 준비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

11) 추석의 예상 지출은 추석 명절과 관계없는 국내외 여행경비를 제외하고, 추석 상차림비, 명절 선물비, 가족 및 친·인척 용돈, 귀성·귀경 경비 등을 포함

서울시민의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 장소 1순위는 여전히 대형마트

- 서울시민의 절반 정도는 대형마트 이용, 연령대 대부분 슈퍼마켓보다 온라인 쇼핑물 선호
 - 1순위 기준으로 ‘대형마트’가 49.0%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전통시장’ 20.2%, ‘온라인 쇼핑물’ 14.0%, ‘농협·수협·축협’ 7.5%, ‘슈퍼마켓’ 7.4% 등의 순
 - 연 가구소득별로는 전 소득계층에서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 장소로 ‘대형마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 연령별에서도 모든 연령대에서 ‘대형마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슈퍼마켓보다는 온라인 쇼핑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 슈퍼마켓: 30대 이하 8.1%, 40대 4.1%, 50대 9.0%, 60대 7.6%
 - 온라인 쇼핑물: 30대 이하 17.3%, 40대 15.6%, 50대 11.9%, 60대 7.6%
 - 1~2순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각각 76.6%와 4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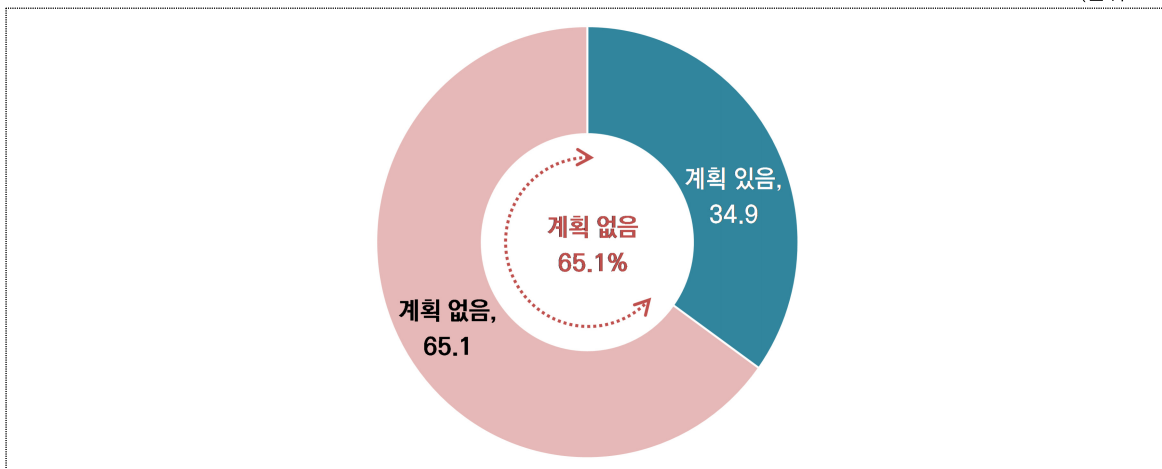


[그림 18]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 장소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올해 추석 연휴에 이동 계획이 없다고 응답

- 서울시민 65.1%는 ‘올해 추석 이동 계획이 없다’고 응답
 - 서울시민 중 65.1%는 올해 추석 연휴에 ‘이동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동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4.9%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올해 추석 이동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올해 추석 이동 계획이 있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연령대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올해 추석 이동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올해 추석 이동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경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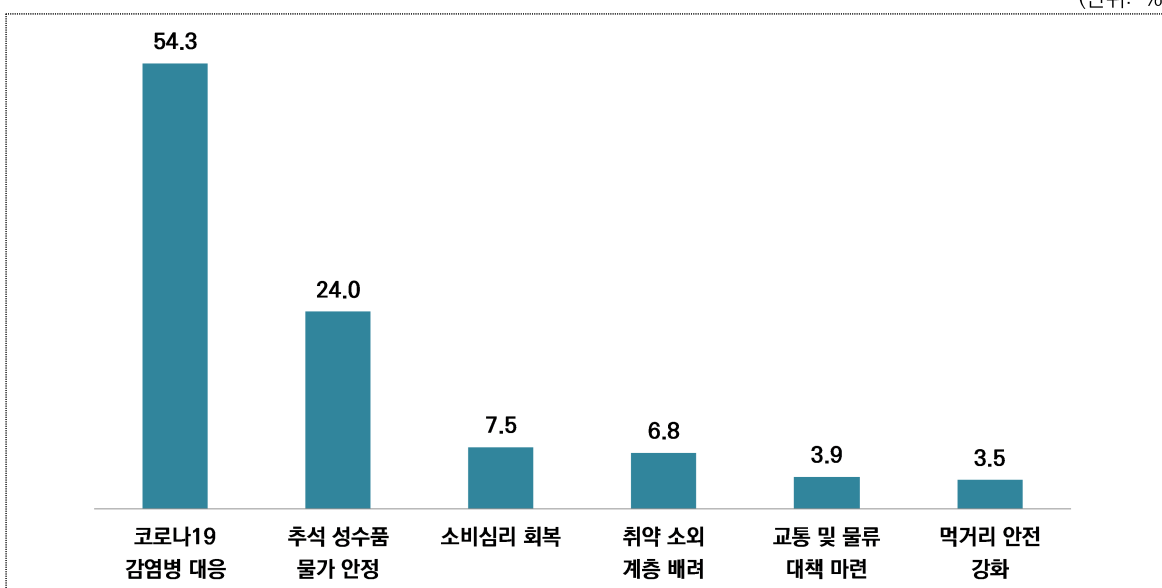


[그림 19] 올해 추석 이동 계획 유무

올해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 서울시민이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가장 바라는 과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응답 비율이 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그다음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24.0%), ‘소비심리 회복’(7.5%), ‘취약 소외 계층 배려’(6.8%) 등의 순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과 연령대 모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도 모두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지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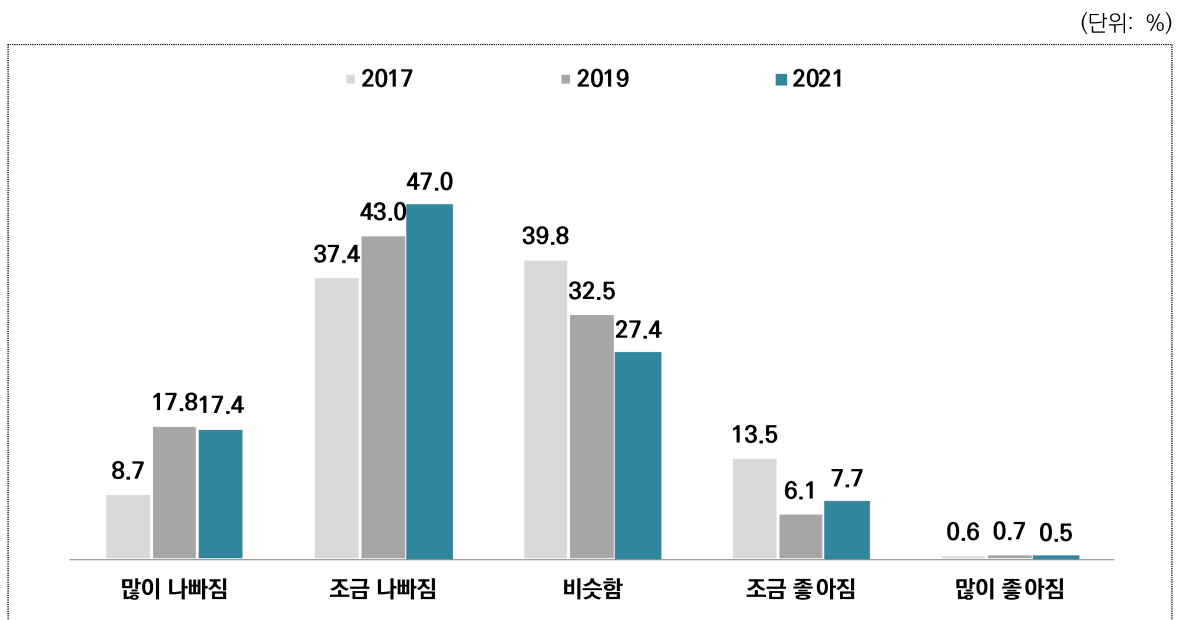


[그림 20]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

I 추석 경기 5년(2017~2021) 추이

지난 5년간 추석 경기는 전년 대비 계속 나빠질 것으로 전망

- 전년 대비 추석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017년 46.1%, 2019년 60.8%에서 2021년 64.4%로 지난 5년간 18.3%p 증가
 -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서 8.2%로 5.9%p 감소



[그림 21] 작년 대비 올해 추석 경기 전망(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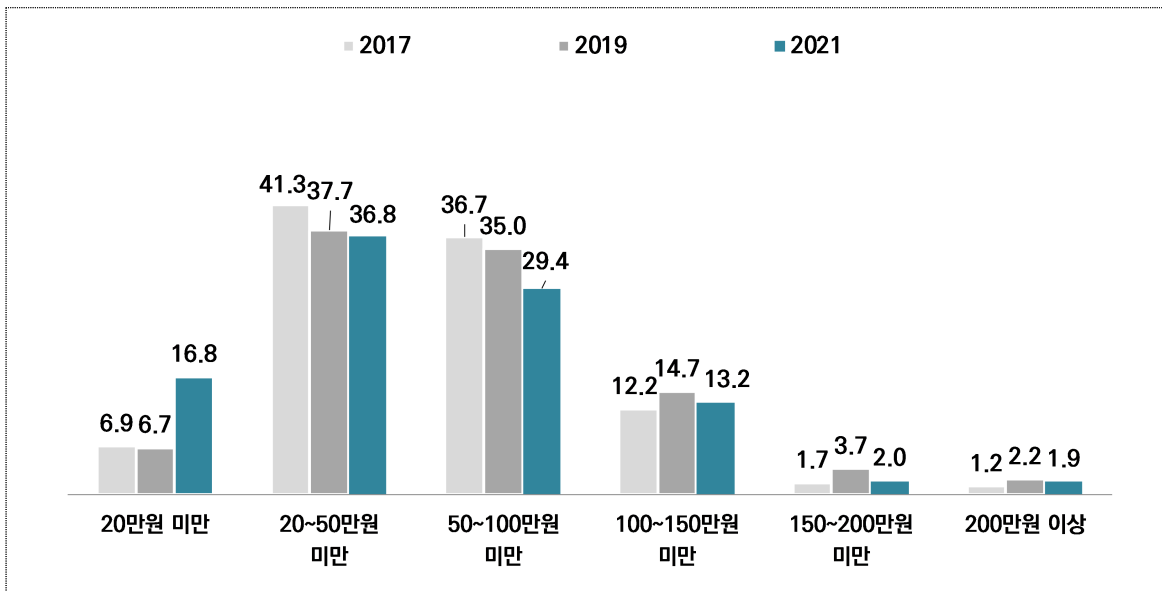
주: 2017년 1,013가구, 2019년 1,200가구, 2021년 1,200가구 대상

- 전년 대비 추석 지출이 줄어든 것이라는 비율 꾸준히 상승
 - 추석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는 응답 비중은 2017년 25.0%에서 2019년 13.9%, 2021년 12.4%로 낮아지면서 지난 5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반면 추석 지출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다'는 응답은 2017년 12.3%, 2019년 22.0%, 2021년 31.8%로 점점 증가

지난 5년간 서울시민의 추석 예상 지출액 중 '2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

- 추석 예상 지출액은 5년간 '20만~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최근 '20만 원 미만'이 크게 증가
 - 지난 5년간 추석의 예상 지출액은 '20만~50만 원 미만'과 '50~100만 원 미만'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
 - '20만 원 미만'은 2017년 6.9%에 불과했지만 2021년 9.9%p 상승한 16.8%를 기록해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및 모임 제한 등이 추석 예상 지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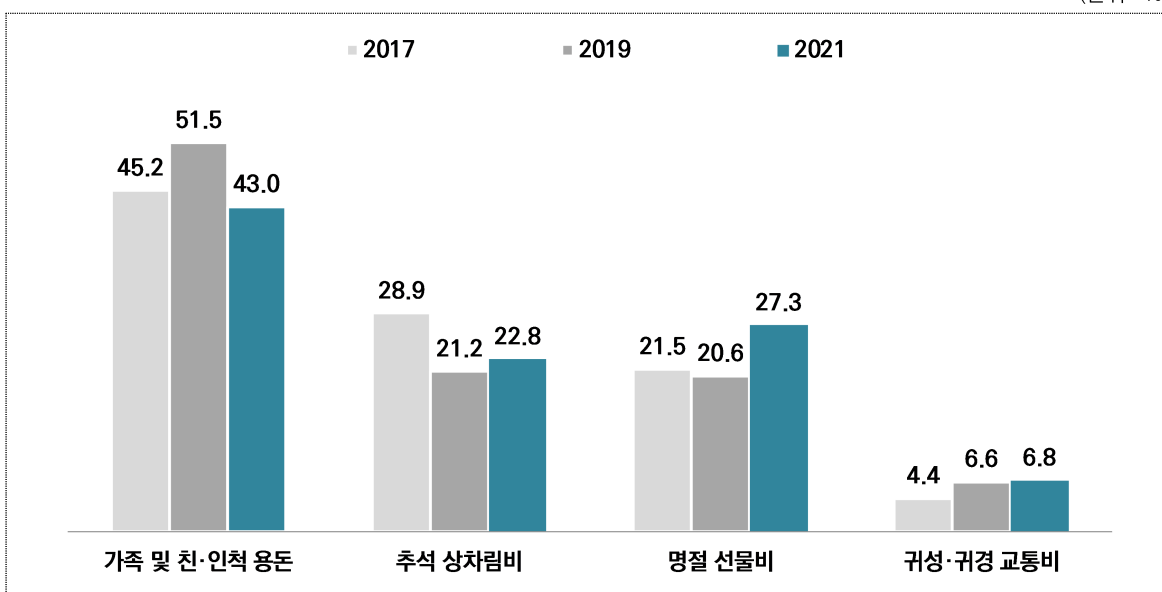


[그림 22] 올해 추석 예상 지출 총액(2017~2021)

추석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은 가족 및 친·인척 용돈이 1순위, 코로나19 이후 명절 선물비 상승

- 추석 준비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으로 ‘가족 및 친·인척 용돈’은 감소하고 ‘명절 선물비’는 증가
 - ‘가족 및 친·인척 용돈’은 2017년 45.2%에서 2019년 51.5%로 상승했고 2021년에는 43.0%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1위 차지
 - 반면, ‘명절 선물비’는 2017년과 2019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에 27.3%로 가장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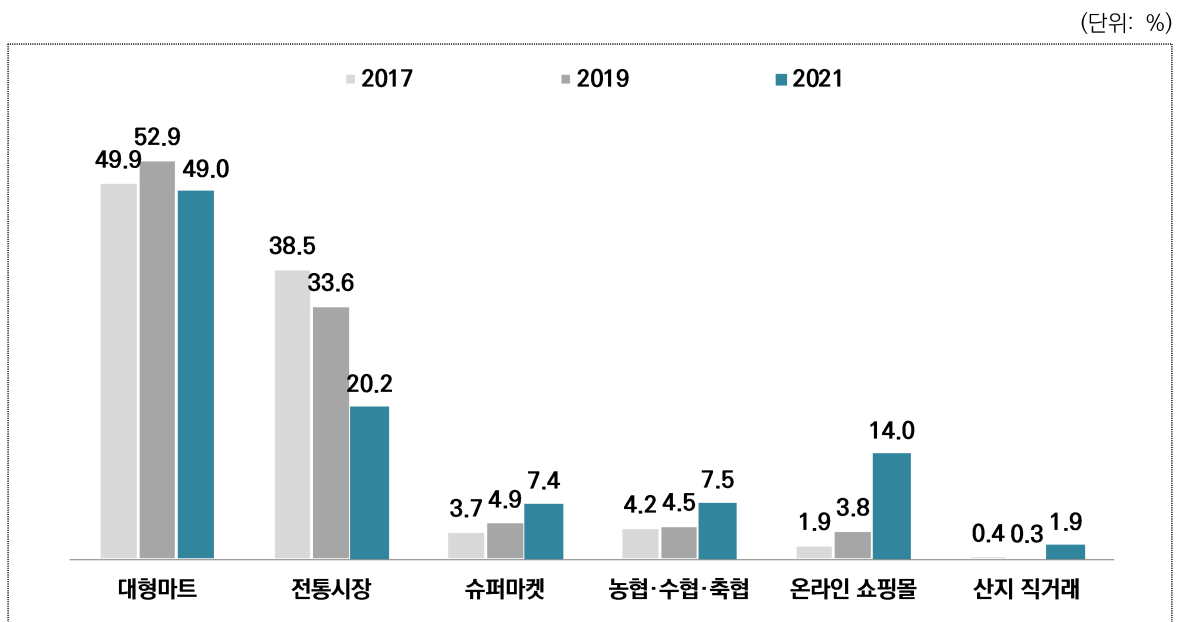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3] 추석 준비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2017~2021)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장소로 온라인 쇼핑몰이 큰 폭으로 상승

-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장소로 온라인 쇼핑몰 5년 만에 7.4배 증가
 - 지난 5년간 1순위 기준으로 ‘대형마트’가 1위를 고수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2017년에 비해 0.9%p 감소
 - 전통시장은 2017년 38.5%에서 2019년 33.6%, 2021년 20.2%로 18.3%p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반면, 2017년 1.9%에 불과했던 온라인 쇼핑몰은 코로나19 2년째인 2021년에 14.0%로 5년 만에 7.4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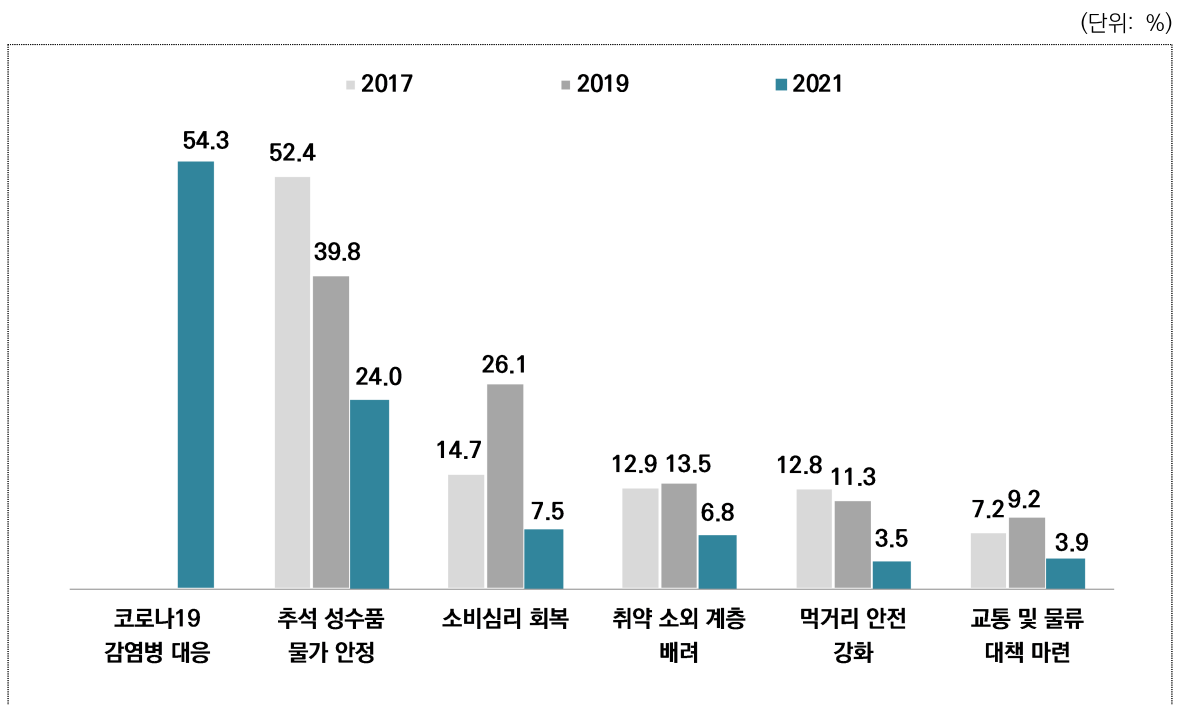


[그림 24]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 장소(2017~2021)

주: 1순위 기준

추석 민생안정 과제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 새롭게 등장

- 서울시민이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가장 바라는 과제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 1순위 차지
 - 2021년 서울시민이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가장 바라는 과제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 과반(54.3%)으로 1순위 차지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거 연속 1위를 차지한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의 응답 비율은 2017년 52.4%에서 2021년 24.0%로 크게 감소



[그림 25]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2017~2021)

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항목은 2021년에 새롭게 추가

부록: 2021년 3/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한국은행은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
 - 한국은행의 '2021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5로 전월 대비 0.7p 하락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20년 3/4분기	87.9	74.4	93.2	53.1	76.2	79.0	58.5
2020년 4/4분기	89.4	75.8	93.9	50.0	78.7	81.2	55.8
2021년 1/4분기	89.0	72.9	96.0	46.6	86.5	77.6	53.8
2021년 2/4분기	92.9	76.6	95.2	56.8	86.5	81.9	56.4
2021년 3/4분기	93.2	79.2	97.1	55.0	81.6	81.6	58.0

*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20년 3/4분기	97.3	83.3	93.4	65.9	123.3
2020년 4/4분기	96.0	85.1	91.6	69.6	124.7
2021년 1/4분기	98.0	85.6	95.6	74.5	135.4
2021년 2/4분기	100.3	87.3	95.3	78.5	131.4
2021년 3/4분기	102.6	87.8	95.7	76.0	133.3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3\%p$ 임 (2021년 3/4분기 조사 시점은 2021년 8월 3일~8월 17일)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